

# 9·11 테러 이후 1년

- 그 경제적 파급효과와 시사점 -

2002. 9

K O T R A

## 목 차

|                                              |     |                                                        |
|----------------------------------------------|-----|--------------------------------------------------------|
| 1. 9·11 테러의 단기적 영향 및 미 행정부의 위기관리 정책....4     |     |                                                        |
| · 테러가 경제에 미친 역효과는 강했지만 일시적                   |     |                                                        |
| · 미 연준에 의한 대규모 유동성 공급이 금융시스템을 보호             |     |                                                        |
| · 테러 이후 적극적이고 신속한 위기관리정책은 성공적                |     |                                                        |
| 2. 9·11 테러의 중·장기적 경제 파급효과.....9              |     |                                                        |
| · 선적비용 증가 : 효율성과 보안강화는 상충관계에 있나?             |     |                                                        |
| · 안보 및 군사비 지출 증가 : Peace Dividend 는 이제 사라졌나? |     |                                                        |
| 3. 9·11 테러 이후 세계 무역 환경과 시사점.....20           |     |                                                        |
| · 세계적 경기부진 및 교역량 감소에 어떤 영향 미쳤나?              |     |                                                        |
| · 보안검색 강화, 새로운 무역장벽인가?                       |     |                                                        |
| · 우리 수출에는 어떠한 영향 미쳤나?                        |     |                                                        |
| · 테러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위기관리가 필요하다                  |     |                                                        |
| · 공급망관리(SCM)에 주목하라                           |     |                                                        |
| · 개도국일수록 부정적 영향은 커진다                         |     |                                                        |
| · 국제무역 비용이 증가한다                              |     |                                                        |
| <table><tr><td>부 록</td></tr></table>         | 부 록 | 9·11 테러 1년 후, 미국 경제현황 및 시장변화.....31<br>(KOTRA 북미본부 보고) |
| 부 록                                          |     |                                                        |

|                                                                                              |
|----------------------------------------------------------------------------------------------|
| <p>본 자료는 OECD의 분석자료(OECD Economic Outlook, 2002. 6)와 KOTRA 북미본부의 현지보고 내용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 것임.</p> |
|----------------------------------------------------------------------------------------------|

## < 요약 >

- 9·11 테러는 최근의 어떤 테러공격보다 훨씬 더 많은 약 3천명 이상의 인명사상을 초래하였으며, 물리적인 피해액만 해도 최소한 300억 달러 규모에 달함.
  - 테러로 인한 물리적 자산의 피해액은 민간기업 부문에서 약 140억 달러, 주정부 소유기업 15억 달러, 연방정부 7억 달러로 추정되며, 구조 및 잔해제거 작업 등에 투입된 비용만 해도 최소한 110억 달러에 달함.
- 9·11 테러 이후 미국경제는 소비자 신뢰지수의 급락, 소비수요감소, 신규투자 감소, 주가하락 등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었으나, 미 행정부와 연준의 신속하고도 효율적인 위기관리 정책 등에 힘입어 테러가 미국경제에 미친 부정적 효과는 예상된 것보다 훨씬 경미한 것으로 평가됨.
  - 테러 이후 미 연준은 금융시스템 마비에 따른 지급 불능 및 연쇄적 채무 불이행 사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무제한적인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경기부양을 위해 여러 차례에 걸쳐 금리를 인하하였음.
  - 미 행정부의 재정정책 또한 매우 신속했는데, 테러 발생 4일 후인 9월 14일, 의회는 400억 달러의 비상 지출안을 승인하였으며, 며칠 후에는 국내 항공사에 대한 50억 달러의 직접 원조와 100억 달러의 연방대출 보증을 승인함.
  - 이 같은 연준과 행정부 및 의회의 신속한 대응은 경제주체들의 신뢰를 단시일 내에 회복시켜 테러의 영향을 조기에 수습하는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 9·11 테러로 인해 우리 수출에 일시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이 없지 않았겠으나 특기할 만한 큰 영향은 없었던 것으로 분석됨.
  - 우리 나라의 수출은 9·11 테러 이전부터 선진국 경기부진에 따른 IT품목의 수출 급감, 세계교역 위축에 따른 경쟁심화 및 수입규제 강화와 같은 대외 경제여건 변화로 인해 큰폭의 수출 감소세를 시현하고 있었음.

(작년 3월 2.1% 감소하여 1999년 4월(-4.6%) 이후 23개월만에 감소를 나타낸 우리 수출은 이후 감소세가 확대되어 7월과 8월에는 각각 21.0%와 20.1% 감소)

- 9·11 테러 이후의 우리 나라 수출 동향을 살펴보면 2001년 9월 우리 수출은 감소하였으나 작년 3월부터 지속되어온 감소세였으며, 테러 사태 이후의 특이한 변화를 보기는 어려움.

□ 세계 어디나 테러로부터 안전지대일 수는 없으며, 우리 나라도 예외는 아닌 만큼 최근 갈수록 대형화되어 가고있는 테러공격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대응체제 강화가 필요한 시점임.

- 국내 테러발생 가능성에 대비해서는 물론, 해외에서의 테러도 우리 수출과 경제에 파급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대비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이 9·11 테러가 남긴 경제적 충격에서 단시간 내에 벗어날 수 있었던 데에는 미 행정부 및 연준의 신속하고도 효율적인 위기관리정책이 기여한 바가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므로, 우리 정부도 미국이 테러 이후 시행한 일련의 위기관리 정책들을 검토하여 우리 실정에 부합하는 것들은 적극적으로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음.

□ 9·11 테러 이후 강화된 보안검색으로 인해 운송비용이 증가하고 운송시간 예측이 어려워지는 등 제반 거래비용이 상승하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기업들의 공급망관리(SCM:Supply Chain Management)체제에 심각한 교란이 발생하여 비용구조가 악화될 수 있으므로 우리기업들은 이러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우리 기업들로서는 재고관리 비용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부품조달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로 주먹구구식으로 재고량을 늘리기 보다는 주요 부품의 국산화, 부품 수입선의 다양화, 새로운 적정재고량 산정, 부품 공급자와의 협력강화 등과 같은 자구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테러로 인한 각국의 보안검색 강화는 장기적으로 선진국보다는 개도국에 더 큰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향후에도 그 격차가 심화될 전망이다.

- 개도국이나 저개발국가에서 더 많은 테러조직이 운영되고 있으므로 개도국에서 수출되는 교역품에 대한 보안검색이 더욱 강화될 것이 분명함. 이로 인한 개도국 수출품에 대한 통관요건 강화 및 통관시간 지연으로 인해 개도국의 수출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임.
  - 이는 수출시장 관리와 컨테이너보안협약(Container Security Initiative, CSI)과 같은 국제 협력시 감안되어야 할 요소임.
- 테러 이후의 보험료 상승과 보안검색 강화로 인한 운송비용 증가는 국제 무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보험료나 운송비용과 같은 거래비용에 대한 국제무역의 탄력도가 2~3%인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거래 비용 증가는 국제무역을 축소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음.
  - 거래 비용증가로 인한 기업채산성 악화 및 수출감소라는 부정적 영향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보험료나 운송비용 같은 거래비용 상승을 비용구조 혁신을 통해 기업 내부에서 흡수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정책당국도 부보 회피나 부당한 보험료 인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험시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세계 GDP의 1/3 이상을 차지하는 우리의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경제는 테러 충격을 채 벗어나기 전 기업회계 부정사건 등으로 인해 다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테러 후 정부지출과 민간소비의 확대로 지탱해오던 차에 기업회계 부정으로 인한 금융시장 신뢰상실과 함께 소비심리도 위축됨.
  - 산업별로는 자동차와 가전부문은 호조인 반면, 통신과 항공분야는 최악의 상황임.
  - 테러 이후, 유사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보안용품과 통신장비, 가족중심 가치관 확산에 따른 가정용품과 선물용품의 소비가 확대되고 있는 바, 적극적인 수출확대 노력이 요망됨.

## 1. 9·11 테러의 단기적 영향 및 미 행정부의 위기관리 정책

- 9·11 테러는 최근의 어떤 테러공격보다 훨씬 더 많은 약 3천명 이상의 인명사상을 초래하였으며, 물리적인 피해액만 해도 최소한 300억 달러 규모에 달함.
  - 테러로 인한 물리적 자산의 피해액은 민간기업 부문에서 약 140억 달러, 주정부 소유기업 15억 달러, 연방정부 7억 달러로 추정되며, 구조 및 잔해제거 작업 등에 투입된 비용만 해도 최소한 110억 달러에 달함.
- 테러 발생 몇 주 후, 또다시 생화학 테러의 위협이 나타나 미국은 연쇄테러의 공포에 휩싸임.
  - 탄저균 포자가 우편물을 통해 전파되어 여러 명이 사망하는 사태가 발생함.
  - 동시에 다른 여러 종류의 테러위협이 증가하였음. 이로 인해 미국의 주요 사회간접자본(발전소, 핵시설, 화학공장, 댐, 교량, 송유관 등)이 테러의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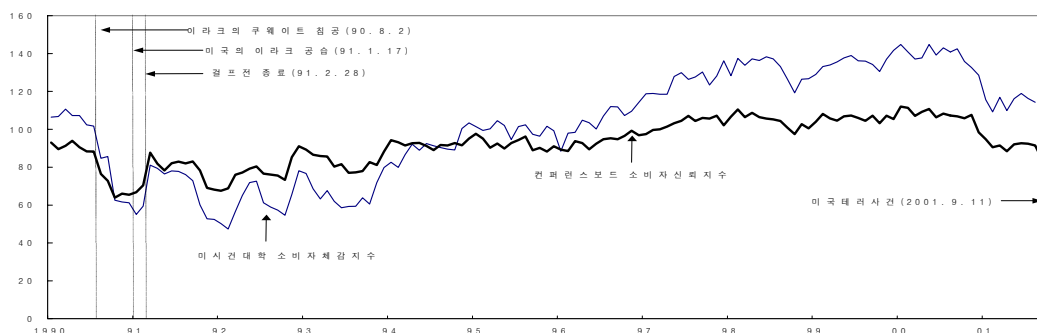
---

### 테러가 경제에 미친 역효과는 강했지만 일시적

---

- 9·11 테러 이전에 이미 미국 내 소비자 신뢰지수는 다른 OECD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2000년도의 최고치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는데, 테러공격은 이러한 낮은 신뢰도를 더욱 약화시킴.

#### 1990년 이후 미국의 소비자신뢰지수 추이



(자료원 : 한국은행 주간해외경제 제2001-37호)

- 테러로 인한 소비자 신뢰지수의 하락은 1990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시의 동 지수하락과 유사하며, 1990년대에 발생했던 여러 테러 사태 때 보다는 더 큰 폭임.
  - 9·11 테러로 인한 미 소비자 신뢰지수 하락의 영향으로 인해 미국보다 큰 폭은 아니었지만 일본이나 EU 국가들의 소비자 신뢰지수도 동반하락함.
- 테러로 인한 생산부문에서의 교란과 소비자들의 소비지출 감소로 인해 3/4분기 실질 GDP는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는 등 부정적 영향들이 나타남.
- 테러로 인해 미국의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도 하향 조정되었는데, 2001년 전망치는 0.5%, 2002년은 1.2% 감소하였음.
  - 민간부문의 고정자본 투자 또한 급격한 감소세를 보였음.
- 이러한 부정적 영향들은 에너지 가격 하락에 힘입은 소비지출 증가와 정부지출로 인해 어느 정도 상쇄되었음.
- 정부 지출 중, 국방비 지출의 경우 4/4분기에 9.5% 증가(계절적 변동요인을 감안한 연율)
  - 테러 초기에 우려했던 것보다는 소비지출 감소폭이 적어 4/4분기에 다시 플러스 성장으로 반전되었음.
- 테러 사태 이후 일부 산업은 계속되는 수요감소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지만, 다른 산업은 테러 이후의 수요 증가로 수혜를 입는 등 산업별 영향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
- 미국 및 다른 OECD 국가들의 항공사들은 9·11 테러 이전 견실한 재무구조를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감소로 인해 적자에 시달리고 있으며 항공기 제조업체들 또한 신규주문 감소로 어려움을 겪음.
  - 보험산업은 테러 사태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본 부문으로, 예상치 못한 혹독한 어려움에 직면함. 호텔, 음식점, 여행사를 포함한 여타 여행관련 산업 또한 미국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급격한 수요감소에 직면함.

- 반면, 보안 및 IT산업분야는 9·11 테러 이후 수요증가로 인해 수혜를 입은 산업으로 평가됨.

□ 9·11 테러 이후 금융시장은 잠시 침체되는 양상을 보였으나 서서히 회복되어 이제 테러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으로 보임.

- 주식가격은 폭락하였으며, 회사채와 정부채의 채권 수익률 스프레드 및 신흥시장과 미국 채권 시장의 수익률 지수 스프레드가 커짐.
- 주가지수에 대한 거래옵션, 정부채 가격, 단기 이자율, 환율 등이 불안한 움직임을 보임.
- 전쟁과 같은 큰 사건이 터진 후 잠시 하락하였던 주식가격이 곧 상승하였던 과거의 전례를 따르기라도 하듯이 9·11 테러 이후 주식가격은 다시 테러 이전 상태로 회복되었고 스프레드 또한 좁혀졌으며 주식시장의 불안정성도 많이 감소하였음.
- 이처럼, 테러사태로 인한 금융시장의 충격은 일시적이었으며 이제 그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으로 보임.

#### 대규모 사건 후 주식가격 변동 및 회복추이

| (S&P 500 지수, 단위 : %) |                        |       |                   |  |
|----------------------|------------------------|-------|-------------------|--|
| 사 건                  | 반 응 기 간                | 초기반응  | 1년 후 <sup>1</sup> |  |
| 진주만 공습               | 1941. 12.9 ~ 29        | -10.2 | 15.3              |  |
| 한국전쟁                 | 1950. 6.23 ~ 7.17      | -12.9 | 31.4              |  |
| 쿠바 미사일 위기            | 1961. 8.23 ~ 10.26     | -8.8  | 36.6              |  |
| 베트남 전쟁               | 1968. 1. 5 ~ 3. 5      | -5.6  | 13.7              |  |
| 걸프전                  | 1990. 8.2 ~ 1991. 1.16 | -11.1 | 32.3              |  |
| 9·11 테러              | 2001. 9.11 ~ 9.19      | -7.0  | 15.0              |  |

1) 9·11 테러의 경우는 6개월 후임

자료원 : 영란은행(Bank of England), OECD

---

## 미 연준에 의한 대규모 유동성 공급이 금융시스템을 보호

---

- 9·11 테러로 인해 뉴욕의 금융시스템은 완전히 마비되었는데(9월 17일까지 금융시장이 폐쇄되었음), 이는 미국 뿐 아니라 전 세계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침.
- 이에 따라 미 연준은 금융시스템 마비에 따른 지급 불능 및 연쇄적 채무 불이행 사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무제한적인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할 것이라고 밝힘.
  - 연준의 기금 금리는 2001년 9월 19일, 1960년대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1.2% 까지 하락함.
  - 연준은 또한, 미국 내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을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EU 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 영란은행(Bank of England), 캐나다 중앙은행(Bank of Canada) 등과 약 900억 달러에 달하는 스왑(Swap)계약을 체결하기도 함.
- 테러 발생 이후 금융시장의 신속한 기능재개를 위해 통신 및 전력 등의 분야에서 많은 노력들이 기울여졌고 이후 금융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함에 따라 대출금이 상환되고, 연준의 기금 금리도 3% 내외로 상승함.

---

## 테러 이후 적극적이고 신속한 위기관리정책은 성공적

---

- 테러로 인한 경기침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금리를 대폭 인하하는 등의 적극적인 통화정책이 조기에 실행되었음.
- 미 행정부의 재정정책 또한 매우 신속했는데, 테러 발생 4일 후인 9월 14일, 의회는 400억 달러의 비상 지출안을 승인하였으며, 며칠 후에는 국내 항공사에 대한 50억 달러의 직접 원조와 100억 달러의 연방대출 보증을 승인하였음.

- 비록 작은 규모이지만, EU 국가들은 테러사태 이후 미국 내 공항이 4일간 폐쇄됨으로 인해 발생하였던 손해를 보전해 주기 위해 자국 항공사에 직접적인 원조를 하기도 함.

□ 미 당국은 테러사태 이후 안보를 위해 국경 지대에서의 통관검사를 강화하는 등의 적극적인 규제강화 정책을 시행함.

- 테러리스트, 테러단체, 테러 지지자 및 후원자들의 미국 자산을 동결시켰으며 그들과의 금융거래 또한 모조리 금지시킴.
- 안보와 관련된 규제는 대부분의 OECD 국가들에서 시행되거나 강화되었는데, 비록 미국에서는 의회의 승인을 얻는데 실패하였지만 각국 정부는 테러위험에 대한 일시적인 보험을 제공하기도 하였음.

□ 전반적으로, 테러 이후의 효율적인 경제위기 관리정책에 힘입어 테러가 경제에 미친 역효과는 단기적으로는 예상된 것보다는 훨씬 경미한 것으로 평가됨.

- 연준과 행정부 및 의회의 신속한 대응은 경제주체들의 신뢰를 단시일 내에 회복시켰음.
- 채권가격을 인하시킨 것, 연준의 유동성 공급, 각국 통화당국들의 협력 등은 금융시스템을 보호하고 기업들의 연쇄도산을 방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음.

## 2. 9·11 테러의 중·장기적 경제 파급효과

□ 비록 강한 정책적 대응이 단기적으로는 테러사태의 경제적 충격을 경감시킬 수는 있었지만, 9·11 테러의 중·장기적 파급효과는 과소 평가되어서는 안됨.

- 아직 9·11 테러의 장기적 파급효과를 다룬 연구는 많지 않지만, 친테러적인 스페인의 바스크 지역에 관한 사례연구를 살펴보면, 테러가 경제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은 경제활동이 보다 더 안전한 지역으로 옮겨감으로 인해 생산량이 영구히 감소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사례연구는 좁은 지역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대규모 국민경제에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테러 발생 1년이 지난 지금, 다음과 같은 3가지 중요한 테러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지속될 것으로 보임.

- 테러와 관련된 재해에 대한 보험 보상은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보이며 보험료는 상당히 오를 것으로 예상됨.
- 국경지대에서의 보안검색 강화 및 대량의 상품 유입 차단압력은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국제무역과 관련된 제반 비용을 증가시켜 기업의 비용 구조를 증가시킬 것으로 분석됨.
- 안보 및 군사작전에 대한 공공지출은 증가할 것임.

---

### 보험 보상범위의 축소, 정부가 개입해야 하나?

---

□ 테러 공격으로 인한 보험산업(재보험 포함)의 손실은 300~580억 달러로 추산됨. 9·11 테러는 역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보험금 지급사태를 초래하였는데, 이전까지는 지난 1992년 미국 플로리다의 태풍피해 시 지급되었던 210억 달러의 보험금이 가장 큰 액수였음.

- 이러한 거대한 보험금 지급 사태에도 불구하고 주요 보험회사의 파산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는 보험금 지급에 따른 파산 위험이 다수의 보험 회사 및 국가로 전가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유럽계가 대부분인 재보험 회사들이 보험손실의 절반을 부담하였음.
  - 테러 공격으로 인해 많은 보험 및 재보험 회사의 재무구조가 심각한 타격을 받았는데, 그 결과 많은 보험회사들은 9·11 테러와 같은 대규모 재해가 다시 닥칠 경우 연쇄 파산 사태가 우려됨.
- 9·11 테러 이후, 1차 보험회사와 재보험회사들은 보험료를 인상하였고 테러와 관련된 위험에 대한 보상범위를 줄이거나 보험대상에서 제외시켰는데, 이러한 조치는 여러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음.
- 보험료 인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산업은 항공산업이며. 이 외에 운송, 건설, 관광, 발전산업도 상당한 영향을 받음.
  - 전반적으로, 상업건물과 손해보험의 보험료는 평균적으로 30% 상승하였으며, 화학 및 전력설비나 상징성이 높은 주요 건물들처럼 테러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소위 표적구조물(Target Structure)에 대한 보험료는 급격히 상승하였음.
  - 1차 보험회사들의 보험료 상승에도 불구하고 재보험 회사들의 보험료는 이 분야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그리 상승하지 못했는데, 이는 앞으로 더 이상 보험료가 상승하는 것을 제한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자본축적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불확실성과 위험을 공유하고 제한하는(즉,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기구의 존재는 종종 투자 증가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
- 이러한 기구들은 유한회사라는 기업형태를 만들어 냈으며, 헤징(Hedging) 조직의 발전, 보험산업의 성장에 기여하였음.
  - 보험대상 분야의 축소가 투자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증대시킨다는 측면에서 볼 때 보험분야의 축소는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음.

□ 위험에 대한 보상범위의 축소는 대부분 대규모의 테러 공격에 대한 보험료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큰 이유임.

- 9·11 테러 이전까지는 테러공격과 같은 초대형 재해사건이 발생할 위험은 매우 낮은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이같은 위험은 거의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았음.
- 이제 1차 보험자와 재보험자들은 테러에 관련된 위험들의 가격을 산정해야 하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일을 해야만 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부보대상에서 제외할 것임.
-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보험회사들은 테러공격의 유형과 위험을 정형화 할 수 있는 더 좋은 모델을 개발할 것으로 보임.

□ 보험 위험을 금융시장에 전가시킬 수 있는 메커니즘의 활용 또한 테러에 대한 보험범위를 넓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임.

- “재해채권(Catastrophe bonds)”이라고도 불리우는 “보험성채권(Insurance bonds)시장은 정보 불균형 현상으로 인한 낮은 수요와 다른 값싼 자금조달 수단의 존재로 인해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 산업 분야에서의 자본재 수요증대와 보험성 채권을 보통 채권들처럼 금융시장에서 활발히 거래될 수 있도록 만들려는 계획은 유동성을 증대시킬 뿐 아니라, 자본시장이 새로운 위험전가 메커니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테러 위험의 형태에 대한 효율적인 정형화(modeling), 민간보험 분야의 역량 확대, 테러보험의 위험전가 메커니즘 개발 등이 몇 년 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 전반적으로, 역사상 유례없는 보험금 지급에도 불구하고 보험산업은 연쇄 부도 사태에 빠지지 않았으며, 규모가 큰 재보험 회사는 주주들에게 계속 배당금을 지불할 수 있을 정도로 비교적 건전한 재무구조를 보유하고 있음.

- 이러한 보험회사의 가격 책정력(pricing power)은 인해 새로운 보험회사들의 시장진입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추가적인 보험료 인상을 억제할 수 있음.

□ 보험료 인상 외에 더욱 우려되는 것은 상업자산에 대한 테러위협이 증가되자, 보험회사들이 이들 상업자산에 대한 보험범위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임.

- 결국에는 보험회사들이 테러와 관련된 위험에 대해서도 보험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보험회사들이 앞으로 또다시 9·11 테러 때와 같은 손해를 원하지 않을 것이므로 현재로서는 이러한 전망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이런 여러 가지 점에서 현재 테러보험 분야는 시장실패 상태이며, 시장에 의해 보험산업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경우 정부의 시장 개입이 불가피하겠으나, 가능한 시장기능에 맡겨야 함.

- 정부개입은 반드시 민간부문에 의해 보험이 제공되어지지 않는 핵 공격과 같은 대규모 테러로 인한 손실이 있을 경우에만 이루어져야 함.
- 다시 말해, 정부의 보험시장 개입은 최대한 자제되어야 하며, 보험시장이 민간부문에 의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할 경우에만 이루어져야 함.

---

### 선적비용 증가 : 효율성과 보안강화는 상충관계에 있나?

---

□ 9·11 테러사태 직후 미국의 모든 공항이 4일 동안 폐쇄되고, 뉴욕 및 뉴저지 항만 당국(Port Authority of New York and New Jersey)도 이틀 동안 운영되지 못하였으며, 테러 이후 보안검색 강화 등으로 인해 미국의 운송체계는 극심한 혼란에 빠짐.

- 이러한 보안검색 강화의 가장 큰 영향은 일일 평균 약 50만 대의 차량과 약 140억 달러 어치의 교역품이 이동하는 미국-캐나다 국경 지대에서 나타났음.

- 미-캐나다 국경지대에서의 통관지체는 특히 자동차 산업에 큰 피해를 남겼는데, 그 이유는 통관지체로 인해 부품공급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해 자동차 산업의 주된 재고관리 방식이었던 JIT(just-in-time)시스템이 붕괴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강화됐던 보안검색이 조금씩 완화되고 검색요원들이 많이 충원되면서, 국경 지대에서의 물동량은 정상상태로 돌아왔는데, 발전된 검색 장비, 양국간 협력, 정보공유를 통한 무역원활화를 목적으로 2001년 12월 체결된 미국과 캐나다 간 “국경협정(smart border)”도 국경지대에서의 원활한 물동량 흐름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음.

□ 강화된 안전요건이나 이로 인한 추가적 부대비용은 상품의 해상 및 항공 운송원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

- 해상운송의 경우, 해상경비대에 의한 잦은 검색, 예인선에 의한 에스코트 요구 등으로 인해 운송비가 상승하였으며 입항 전 대기 시간이 크게 증가함.

- 항공운송의 경우, 공항에서의 보안검색과 관련된 제반 비용의 증가, 보험료 인상, 특정지역으로 운항시 전쟁발발 위험성에 대비한 추가 보험료(war surcharge) 부담 등으로 인해 전체적인 운송원가가 상승함.

□ 그러나 보안과 관련된 새로운 요구사항들로 인한 운임상승효과는 당초 우려보다는 크지 않았으며 테러발생 6개월 후에는 대부분 정상화되고 일부는 하락하기도 함.

- 테러 발생 2주 후, 해상 운송비용은 평균 5~10% 가량 상승하였으나, 곧 다시 하락하기 시작했음.

- 반면 2001년 하반기의 항공운임은 테러 이전에 비해 약 10% 상승하였는데, 2000년부터 지속되어온 총수요의 감소와 테러사태 이후 연료가격의 하락을 고려한다면 항공운임은 오히려 큰 폭으로 하락했어야 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공운임이 오히려 상승한 것은 테러 때문이 아니라 항공 운임의 상대적 탄력성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음.

□ 테러 발생 후, 특히 공항에서는 화물 및 여객 운송에 대한 보안검색이 더욱 강화되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일부에서는 미국 국경지대는 여전히 허점투성이라며 보안검색 강화와 안전 확보의 상관관계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함.
- 국경지대에서의 검문, 검색 기능을 더욱 강화하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예를 들면, 미국 해안경비대는 국제해운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에 선박에 대한 테러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안하였으며, 미 세관은 컨테이너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법안을 제안함.

□ 9·11 테러는 "공급망관리(Supply Chain Management)"체제에 심각한 타격을 가할 수 있음.

- SCM(Supply Chain Management)은 효율적 운송시스템에 의해 제공되어지는 짧은 수송시간 및 신뢰성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재고량 감소 및 수송비용 절감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에 기여하였음.
- 9·11 테러 이후의 운송비용 증가는 SCM체제에 교란을 가져와 기업의 생산성, 및 국제무역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며, 더 나아가서는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음.

□ 전문가들은 테러 사태 후 보안검색 강화로 인해 무역거래에 있어서 1~3%의 추가 비용이 발생함으로써 세계무역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함.

- 이러한 거래비용의 상승은 그간 선진국들에 의한 관세장벽 인하효과를 상쇄시킬 수 있는 것임(일반 공산품에 대한 선진국들의 양허세율 평균치는 2.5%)
- 거래비용에 대한 무역량의 탄력도는 -2 ~ -3% 대로 평가되는 데, 이는 거래 비용의 1% 증가할 때 무역량은 2~3% 감소한다는 것을 뜻함.

□ 비록 단기적으로는 보안검색 강화와 국경통과의 효율성 사이에 상충관계가 생겨나는 것은 불가피 하지만 중, 장기적으로는 제거될 수 있음.

- 새로운 보안강화 조치는 상품통관의 효율성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이루어 질 수 있는데, 그 방법으로는 위험관리분석(risk-management analysis)을 거치는 등의 방법이 있을 수 있음.
- 보안강화로 인한 추가적인 비용 또한 보안강화 계획 및 실행단계에서의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협력에 의해 제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국제사회에서의 협력과 합의 형성은 새로운 보안강화 조치가 무역거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

---

### 안보 및 군사비 지출 증가 : Peace Dividend 는 이제 사라졌나?

---

□ 9·11 테러 직후, 미 행정부와 몇몇 OECD국가들은 재해복원과 안보강화, 테러와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지출을 늘렸음.

- 이러한 추가적인 특별 지출금으로 인해 2001년 4/4분기 정부지출은 대폭 증가하였는데, 이는 총수요와 국내생산의 급격한 하락을 막는 역할을 하였음.
- 이러한 일시적인 공공지출 증가는 고베 대지진이나 1993년 12월에 유럽을 강타한 폭풍같은 대재해 이후에는 항상 있었던 현상임.

#### 대재해 이후의 국내수요 진작을 위한 정부의 공공지출

(단위 : %)

| 국 가              | 사 건             | 다음 분기의 공공지출 |        |
|------------------|-----------------|-------------|--------|
|                  |                 | 분기별 변화율     | GDP 대비 |
| 미 국              | 1994년 LA 대지진    | 0.7         | 0.1    |
| 일 본              | 1995년 고베 대지진    | 3.5         | 0.8    |
| 터 키 <sup>1</sup> | 1999년 대지진       | 13.1        | 1.1    |
| 프랑스              | 1999년 12월 폭풍    | 3.6         | 0.9    |
| 미 국              | 2001년 9월 11일 테러 | 10.2        | 1.8    |

1) 정부지출만을 고려, 2) 자료원 : OECD

□ 부시 미 대통령은 이러한 특별 지출금 외에, 의회에 2002년 예산안에 안보관련 예산을 증액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그 중 480억 달러는 군사비 지출을 위한 것임(전년 대비 14% 증가). 또한 국토안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의회에 380억 달러(2001년은 200억 달러)의 특별 지출금 사용 승인을 요청함.

- 이 외에 추가적인 공공지출은 정부차입에 의해 조달될 전망이며,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세금징수가 있을 수도 있음.

- 미 행정부는 다른 분야 예산도 2%까지 늘릴 것을 요청했는데, 이는 전례가 없는 것으로 의회의 승인을 얻기가 쉽지 않음.

□ 다른 OECD국가들에서는 안보관련 예산 지출이 미국처럼 큰 폭으로 증가되지는 않았지만, 주어진 예산 내에서 항목 조정을 통해 테러예방과 대처 능력 함양을 위한 부문에 자금을 지출하고 있음. 이처럼 테러 이후 많은 국가에서 경제적 자원이 군사분야 및 치안분야에 투입되고 있음.

#### 주요국의 국방 및 치안부문 지출

(단위 : GDP 대비 %)

| 연도<br>국가         | 2000년도 |     |     | 2001년도 |     |     | 2002년도 |     |     |
|------------------|--------|-----|-----|--------|-----|-----|--------|-----|-----|
|                  | 국방     | 치안  | 합계  | 국방     | 치안  | 합계  | 국방     | 치안  | 합계  |
| 미국 <sup>1</sup>  | 3.0    | 0.1 | 3.1 | 3.0    | 0.1 | 3.1 | 3.3    | 0.1 | 3.4 |
| 일본 <sup>1</sup>  | 1.0    | 0.1 | 1.0 | 1.0    | 0.1 | 1.0 | 1.0    | 0.1 | 1.1 |
| 독일 <sup>2</sup>  | ..     | ..  | 1.3 | ..     | ..  | 1.3 | ..     | ..  | 1.3 |
| 프랑스              | 2.6    | 0.3 | 3.0 | 2.6    | 0.3 | 2.9 | 2.5    | 0.3 | 2.8 |
| 이태리 <sup>3</sup> | 1.1    | 1.5 | 2.6 | 1.2    | 1.5 | 2.8 | 1.3    | 1.6 | 2.8 |
| 영국 <sup>1</sup>  | 1.9    | 0.8 | 2.7 | 1.9    | 0.9 | 2.7 | 1.8    | 0.9 | 2.7 |
| 캐나다 <sup>1</sup> | ..     | ..  | 1.3 | ..     | ..  | 1.5 | ..     | ..  | 1.5 |

주) 위 수치들은 각국 예산에 근거한 것들이므로(즉, 국민계정에 근거한 것이 아님) 정확한 국가간 비교는 어려움

1) 회계연도 기준, 연방(또는 중앙)정부 기준

2) “반테러 법안” 예산(2002년 GDP의 0.07%)을 포함

3) 중앙정부 기준

□ 미국의 국방 및 국토안전 보장을 위한 지출액은 GDP의 4% 이내로 유지될 전망이다.

- 미국의 군사비 지출증가는 9·11 테러 이후 시작되었으며 전세계의 군사비 지출 또한 1998년에 최저 수준에 다다랐다가 최근 다시 증가하기 시작함.

□ 이러한 각국의 군사비 지출증가는 이른바 “Peace Dividend”<sup>1)</sup>가 이제 사라지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와 여러 국가들이 이제 군사작전 및 국토방위 부문에 공공지출을 증대시키는 새로운 시대로 들어선 게 아닌가라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음.

- 군비 지출이 증가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냉전종식이 복지향상에 기여한 것이었다라는 기대와 함께 관심을 끈 주제였음.
- 이론 경제학에서는 군사비 지출 증가가 여러 경로(낮은 자본 축적, 민간 부문의 노동력 감소, 자본 전환으로 인한 손실 등)를 통해 중, 장기적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함.
- 반면에 실증경제학은 다소 모호한 결과를 도출했는데, 계량적 분석방법을 통한 연구는 단기적으로는 군사비 지출증가가 총수요 증가를 통해 경제성장에 기여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군사비 지출증가가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것임.
- 대체로 초창기 연구결과는 부정적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최근의 연구결과를 보면 군사비 지출 증가와 투자 및 경제성장 사이에 강한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이상을 종합해 보면 군사비 지출증가는 경제성장에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이러한 영향은 매우 작을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경제성장을 방해하는 다른 요소들에 비해 그 영향이 크지 않다고 할 수 있음.

---

1) Peace Dividend란 냉전시대가 종식되면서 동시대 동안 군사력 증강에 투입되었던 각종 경제적 자원들이 다른 분야에 쓰여지면서 각국은 경제성장 및 국민후생 증대 등의 이득을 보았는데, 이처럼 평화시대가 도래하면서 각국인 얻고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함.

□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보안에 대한 민간부문의 지출 또한 증가하여, 연간 4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

- 민간부문 보안관련 지출의 절반은 경호원 및 기타 안전요원 채용에 쓰여졌으며 나머지는 정보시스템, 컴퓨터 보안, 안전금고, 방어벽, 감시카메라, 안전조명장치, 경비견 구입에 사용되었음.

- 이러한 민간부문의 보안관련 지출증가로 인해 정보통신 기술인력, 상업자산을 보호하는 경호원의 고용이 늘어나게 됐는데, 이는 결국 노동생산성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게 됨.

□ 민간부문의 보안관련 지출증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중장기적 영향 역시 부정적이지만 미미할 것으로 보임.

- 민간부문의 보안지출 증가는 5년 후에 잠재생산량을 0.6% 감소시키고 민간부문의 생산성을 0.8% 감소시킬 것으로 전망됨.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군사비 및 보안관련 지출 증가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기 위해 "The US block of OECD's Interlink Model"을 이용해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군사비 지출로 인한 총수요 증가는 단기적으로 생산량을 증가시킴.

- 그러나 장기이자율이 상승하면서, 자본축적은 감소함.

- 노동생산성은 0.5% 감소하며, 환율은 3% 평가절상 됨.

- 결국, 장기적으로는 생산량이 감소하게 됨.

□ 전반적으로, 9·11 테러 이후 단기적 회복은 예상보다 빨랐지만, 중,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부정적 영향이 여전히 남아있음.

- 공공 및 민간부문의 보안관련 지출 증가폭은 그리 크지 않았지만, 생산요소 및 생산성에는 부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보임.

- 테러와 관련된 위험에 대한 보상범위의 축소는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 통관 시 보안검색 강화로 인한 “공급망관리(Supply Chain Management)”의 교란이 기업의 비용구조를 상승시켜 국제무역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 ☐ 위와 같은 영향을 고려해 보았을 때 9·11 테러의 중장기적 파급효과에 대해 아직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임.

### 3. 9·11 테러 이후 세계 무역 환경과 시사점

---

#### 세계적 경기부진 및 교역량 감소에 어떤 영향 미쳤나?

---

- WTO(World Trade Organization) “Annual Report 2002”에 따르면 2001년 전세계 GDP는 소폭 증가하였으며, 세계교역량은 오히려 감소하였음.
  - 2001년 세계 GDP 증가율은 1%를 조금 상회하였으며(2000년 세계 GDP 증가율 약 4%), 세계교역량 증가율은 -1%임.(2000년 세계교역량 증가율 약 11%)
- 2001년의 세계 경제성장을 둔화와 교역량 감소의 주원인으로는 미국 신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IT산업의 거품 붕괴, 서유럽 지역의 경기침체, 그리고 9·11 테러사태 등을 들 수 있음.
  - IT산업에 대한 투자 및 수요감소는 곧바로 IT분야의 무역감소로 이어졌는데, 이로 인해 IT제품의 주요 수출국인 한국, 말레이시아, 대만, 싱가포르의 2001년 상품무역액은 전년대비 13%나 감소하였음.
  - 전세계 무역량의 1/3을 차지하고 있는 서유럽지역 경기침체의 원인은 미국 경기하락과 같은 외부적 요인보다는 물가상승과 내수부진 등의 내부적 요인에 기인함.
  - 9·11 테러 사태로 인해 이미 낮은 수준에 있던 소비자 및 생산자 신뢰지수는 더욱 하락하였고, 주식가격도 일시적으로 하락했으며, 단기적으로 미국의 상품수입이 감소하였음.

#### 미국의 소비자신뢰지수 추이

(1985=100)

|             | 2001  |       |       |       |       |       |       |       |      |      |      |
|-------------|-------|-------|-------|-------|-------|-------|-------|-------|------|------|------|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 소비자<br>신뢰지수 | 115.7 | 109.2 | 116.9 | 109.9 | 116.1 | 118.9 | 116.3 | 114.0 | 97.0 | 85.3 | 82.2 |

(자료원 : 한국은행)

□ 앞서 요약, 정리 한 OECD의 분석결과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9·11 테러가 2001년 세계교역량 감소에 미친 영향은 매우 단기적이며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9·11 테러 이전에 이미 IMF는 미국의 경기부진으로 인해 세계경제는 당분간 침체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하며, 같은 해 4월에 전망치를 하향조정 한 바 있음.

####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            | (단위 : %) |       |           |          |
|------------|----------|-------|-----------|----------|
|            | 1999년    | 2000년 | 2001년     | 2002년    |
| 경 제 성 장 률  |          |       |           |          |
| 전 세 계      | 3.6      | 4.7   | 2.6(3.2)  | 3.5(3.9) |
| 선 진 국      | 3.4      | 3.8   | 1.3(1.9)  | 2.1(2.7) |
| (미 국)      | 4.1      | 4.1   | 1.3(1.5)  | 2.2(2.5) |
| (일 본)      | 0.8      | 1.5   | -0.5(0.6) | 0.2(1.5) |
| (유로지역)     | 2.6      | 3.5   | 1.8(2.4)  | 2.2(2.8) |
| (아시아신흥시장국) | 7.9      | 8.2   | 1.0(3.8)  | 4.3(5.5) |
| 개 도 국      | 3.9      | 5.8   | 4.3(5.0)  | 5.3(5.6) |
| (아 시 아)    | 6.1      | 6.8   | 5.8(5.9)  | 6.2(6.3) |
| (중 남 미)    | 0.2      | 4.2   | 1.7(3.7)  | 3.6(4.4) |
| 체 제 전 환 국  | 3.6      | 6.3   | 4.0(4.0)  | 4.1(4.2) |
| 세계교역신장률    | 5.3      | 12.4  | 4.0(6.7)  | 5.7(6.5) |

주) 2001년 2002년은 추정치, ( )안은 2001년 4월 전망치

자료원 :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01. 9.

- 9·11 테러 전 미국은 이미 IT산업의 거품붕괴로 인해 주식가격이 하락하였고, 신규 투자 및 미국 GDP의 2/3를 차지하며 미국 경제를 지탱해 왔던 민간소비가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10년에 걸친 장기호황을 끝마치며 경기침체 국면에 들어서 있었음.
- 9·11 테러 전 미국 경제가 이미 침체국면에 들어서 있었다는 증거는 여러 곳에서 발견 될 수 있는데, 미 Conference Board는 8월중 경기동행지수는 전월과 같은 116.6인 반면 경기선행지수가 전월보다 0.3% 하락한

109.6을 기록하였다고 발표했으며, 미 상부무 센서스국은 8월중 내구재수주가 전월대비 0.3% 감소하여 3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하였다고 발표함.

- 미 연준도 경기 부양을 위해 2001년 8월 21일 개최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페더럴펀드 목표금리를 3.75%에서 3.5%로, 재할인율을 3.25%에서 3.0%로 각각 0.25%포인트씩 인하하였는데, 페더럴펀드 목표금리는 2001년 들어 일곱 번에 걸쳐 총 3.0%포인트 인하됨으로써 1994년 3월(3.5%) 후 최저수준을 기록하였음.

#### 미국의 페더럴펀드 목표금리 및 재할인율 추이

(단위: 연 %)

|            | 2000 |      |      | 2001 |      |      |      |      |      |      |      |
|------------|------|------|------|------|------|------|------|------|------|------|------|
|            | 2.2  | 3.21 | 5.16 | 1.3  | 1.4  | 1.31 | 3.20 | 4.18 | 5.15 | 6.27 | 8.21 |
| 페더럴펀드 목표금리 | 5.75 | 6.00 | 6.50 | 6.00 | 6.00 | 5.50 | 5.00 | 4.50 | 4.00 | 3.75 | 3.50 |
| 재 할 인 율    | 5.25 | 5.50 | 6.00 | 5.75 | 5.50 | 5.00 | 4.50 | 4.00 | 3.50 | 3.25 | 3.00 |

(자료원 : 한국은행)

- 이처럼 미국 경기는 9·11 테러 전부터 이미 기업의 수익성 악화에 따른 투자 및 재고 조정, 수출부진 등으로 산업생산의 감소세가 이어지는 등 경기부진이 지속되고 있었음.
- 그러므로, 9·11 테러를 미국 경기부진과 세계경제의 동반침체와 이로 인한 세계 교역량 감소의 주 요인으로 꼽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다만 9·11 테러가 이러한 경기침체의 골을 일시적으로 더 깊게 하는 역할을 했다고는 할 수 있음.

---

#### **보안검색 강화, 새로운 무역장벽인가?**

---

- 9·11 테러 이후, 추가테러 예방을 미국 내 공항 및 국경지대에서 보안검색이 강화되었음.
- 공항 및 국경지대에서의 보안검색이 강화됨에 따라, 상품의 통관시간이 지체되기 시작함. 이에 따른 거래비용의 증가는 기업의 비용구조를 악화시키고, 단기적으로 무역거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2001년 1월 17일 미국 관세청은 테러에 대비하고 해상운송의 안전성 확보를 목표로 하는 “컨테이너보안협약(Container Security Initiative, CSI)”을 제안하였음.

- CSI의 주요 내용은 전세계 항구 중 미국으로의 화물 수출이 가장 많은 20대 항구의 해당국가와 협약을 체결하여, 미 세관 검사관을 해당항만에 파견하여, 미국으로 향하는 화물을 사전에 검사하는 것임.

- CSI는 위험화물 검색기준 설정, 미국 내 항만 도착 전 사전검사, 컨테이너 화물 검사를 위한 첨단 보안기술 채택, 보안강화를 위한 특수제작 컨테이너의 개발 및 사용 등의 네 가지 핵심요소로 구성되어 있음.

□ CSI 외에, 미 관세청은 화물검색 강화를 위해 대테러 방지를 위한 세관-무역업계의 협력(Customs-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 C-TPAT) 프로그램을 시행하였음.

- 이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반테러 세이프가드 조치를 채택하는 수입업자에게 신속한 통관 서비스 혜택을 제공한다는 것임.

□ 우리 나라는 최근(2002. 9. 5)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 관세청장 회의”에서 부산항 수출 컨테이너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미국측이 부담하기로 확정하는 등 CSI 체결 원칙에 합의하였음.

- 주요 합의 내용을 살펴보면 검사비용의 미국측 부담 외에도 부산항을 단순경유하는 화물은 검사대상에서 제외되며, 부산항에서 선정된 물품에 대한 검사는 우리 관세청이 실시하며, 위반사실이 발견 될 경우는 수출국의 법규를 우선 적용한다는 것들이 있음.

- CSI 체결 원칙 합의 내용 중 화물검사 비용을 미국측이 부담한다는 것은 우리 수출업계에 유리할 것으로 보이나, 검사방법에 대한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쉬움으로 남음. 왜냐하면, 미국측이 화물터미널 마다 개장검사를 하면 큰 문제는 없으나 컨테이너 검색기로 검사를 실시하면 화물운송료를 화주나 해운사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임.

□ 우리 나라가 미국과의 CSI 협정을 공식 체결하게 되면, 시행 초기에는 양국간 화물검사 방식의 차이 등으로 인해 통관이 지체되면서 일부 수출업체의 피해가 예상되나, CSI가 체결되더라도 보안 검사를 받는 화물은 일부 화물에 국한될 것(전체 화물 중 5% 가량)이므로 대부분의 화물은 예전과 다른없는 속도로 미 국경을 통관 할 것으로 판단됨.

- CSI 협정 체결 후 미 세관원에 의한 화물검사 시행이 정착단계에 들어 서면, 화물검사를 하는 시점(수출시점과 수입시점)의 차이로 인한 문제 점은 많이 사라질 것으로 판단됨.

□ CSI 협정 체결로 인한 우리 수출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향후 실무 협상 과정에서 보다 우리측에 유리하게끔 검사방법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협정 체결 후에도 활발한 정보교환 및 선진기술 도입을 통해 통관지체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검사대상 화물을 효율적으로 선정해야 할 것으로 보임.

□ 테러 이후 세계 각국이 자국의 안보강화를 위해 통관검사를 강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치들은 자칫 새로운 무역장벽이 될 가능성이 있음.

- 특히 이후 미국에서는 일련의 보안검색 강화 조치로 인해 통관 지연 및 세관 억류사태가 빈번해 지고 있음.

- 실제로, 9·11 테러 이후 각국의 보안검색이 강화되면서 거래비용이 약 1~3% 증가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거래비용에 대한 국제무역량의 탄성도가 -2~-3%인 점을 감안할 때 국제무역에 부담이 될 것은 틀림 없음.

□ 테러 사태 이후의 보안검색 강화, 통관요건 강화 등의 조치들로 인한 새로운 무역장벽이 원활한 무역거래에 미치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진보된 검색장비의 도입, 국가간 정보공유 활성화 및 국제사회의 합의 도출 등을 위한 노력이 기울여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우리 수출에는 어떠한 영향 미쳤나?

- 2001년 우리 나라의 수출은 세계경기의 동반침체, IT부문의 해외수요 위축 및 미 테러사태 등 대외여건의 악화가 크게 작용하여 두자릿수의 감소세를 시현하였음.

### 2001년 수출입 실적

(통관기준, 억 달러, %)

| 구 분  | 2000년          | 2001년           |
|------|----------------|-----------------|
| 수 출  | 1,722.7 (19.9) | 1,504.4 (△12.7) |
| 수 입  | 1,604.8 (34.0) | 1,411.0 (△12.1) |
| 무역수지 | 117.9          | 93.4            |

(자료원 : 산업자원부)

- 9·11 테러가 우리 나라의 수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9·11 테러 이전과 이후의 우리 나라 수출 추이를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임.

- 우리 나라의 수출은 작년 3월 2.1% 감소하여 1999년 4월(-4.6%) 이후 23개월만에 감소를 나타낸 이후 감소세가 확대되어 7월과 8월에는 각각 21.0%와 20.1% 감소하였음.

### 2001년중 월별 수출증감률

(전년 동기비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
| 4.0 | 5.1 | -2.1 | -10.3 | -9.0 | -15.0 | -21.0 | -20.1 |

(자료원 : 한국은행)

- 이와 같은 작년 상반기의 수출부진은 선진국 경기부진에 따른 IT품목의 수출 급감, 세계교역 위축에 따른 경쟁심화 및 수입규제 강화와 같은 대외 경제여건 변화에 주로 기인하고 있으나 특정지역과 소수품목에 편중된 수출구조 등과 같은 내부 구조적인 문제에도 기인한 바도 큼.

- 9·11 테러 이후의 우리 나라 수출 동향을 살펴보면 2001년 9월 우리 나라의 수출액은 작년 3월부터 지속되어온 수출 감소세를 유지하였으며, 테러 사태 이후에도 특이한 변화를 보이지는 않았음.

#### 9·11 테러 전후의 수출증감률

(전년동기비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02. 1월 | 02. 2월 |
|-------|-------|-------|-------|-------|-------|--------|--------|
| -21.0 | -20.1 | -15.0 | -21.0 | -20.1 | -20.1 | -10.0  | -17.4  |

(자료원 : 한국은행, 무역협회)

- 9·11 테러를 전후한 대미 수출실적을 살펴보다도, 테러사태 여파로 인한 급격한 수출감소는 나타나지 않았음.

#### 9·11 테러 전후 대미 수출증감률

(전년동기비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02. 1월 | 02. 2월 |
|-------|-------|-------|-------|-------|-------|--------|--------|
| -25.2 | -20.8 | -19.2 | -25.3 | -18.6 | -33.6 | -7.7   | -9.4   |

(자료원 : 한국은행, 무역협회)

- ☐ 9·11 테러 전후의 우리 나라 전체 수출 및 대미 수출 증감률을 살펴보았을 때 9·11 테러가 우리 나라 수출에 미친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 대미 수출의 경우 테러로 인한 미 소비자들의 소비심리 위축으로 12월에는 -33.6%의 수출 감소세를 보이는 등 단기적으로 영향을 받았지만 올 1월부터 다시 수출 감소폭이 떨어지기 시작함.
- ☐ 결론적으로 9·11 테러는 우리 수출에 일시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이 없지 않았겠으나 특기할 만한 영향은 없었던 것으로 분석됨.
- 작년 3월부터 시작된 우리 나라의 수출부진 원인은 IT산업의 거품이 꺼지면서 나타나기 시작한 선진국 경기침체로 인해 세계 수입수요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며, 이외에 수출단가 하락, 편중된 수출구조 등을 들 수 있음.

---

## 테러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위기관리가 필요하다

---

- 세계 어디나 테러로부터 안전지대일 수는 없으며, 우리 나라도 예외는 아닌 만큼 최근 갈수록 대형화되어 가고있는 테러공격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대응체제 강화가 필요한 시점임.
- 또한 미 정보기관이나 국방부는 향후 9·11 테러와 같은 대형 테러 공격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바, 글로벌화가 진전될수록 세계 다른 곳에서의 테러도 우리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미국이 9·11 테러가 남긴 경제적 충격에서 단시간 내에 벗어날 수 있었던 데에는 미 행정부 및 연준의 신속하고도 효율적인 위기관리정책이 기여한 바가 큼.
- 우리 나라에 9·11 테러와 같은 대규모 테러사태가 발생할 경우, 여러 분야가 많은 피해를 보겠지만 특히, 금융 및 교통시스템, 보험산업에 심각한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유사시 이러한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금융거래 정보의 백업시스템 정비, 교통인프라 확충, 보험시장의 역할 강화 등의 대책이 사전에 점검되어야 할 것임.
- 대규모 테러 발생시 우려되는 사재기로 인한 물가상승, 시중의 유동성 부족, 민간 및 기업 부문의 신뢰도 저하 등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부 및 통화당국의 적극적인 재정 및 통화정책이 요구됨.
- 9·11 테러 1주년 맞이하는 현 시점에서 우리 정부는 미국이 테러 이후 시행한 일련의 위기관리 정책들을 검토하여 우리 실정에 부합하는 것들은 적극적으로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음.

---

## 공급망관리(SCM)에 주목하라

---

- 9·11 테러 이후 강화된 보안검색으로 인해 운송비용이 증가하고 운송시간 예측이 어려워지는 등 제반 거래비용이 상승하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기업들의 공급망관리(SCM:Supply Chain Management)체제에 심각한 교란이 발생하여 비용구조가 악화될 수 있음.

- 보안검색 강화로 인해 물류운송 비용이 증가하거나 운송시간의 예측이 어려워질 경우, 기업들은 보유 재고량을 늘리게 될 것이므로 이로 인해 재고관리 비용도 증가될 것임.
- 미국에서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기업들이 그들의 재고량을 1990년대 수준으로 되돌린다면 약 3,000억 달러의 추가비용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는 GDP의 0.7%에 달하는 큰 금액임.

□ 이러한 공급망관리(SCM)체제는 주로 재고관리 비용이 높고 부품의 적기 조달이 중요한 자동차 및 전자관련 산업에서 널리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우리 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원부자재 및 주요부품 조달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자동차 및 전자관련 산업이 우리의 주력산업인 만큼 공급망관리(SCM)체제의 교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 9·11 이후 보안검색 강화로 우리 기업도 당분간은 공급망관리(SCM)체제 교란에 의한 물류비용 및 재고비용 증가로 인해 비용구조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우리 기업들로서는 재고관리 비용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부품조달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로 주먹구구식으로 재고량을 늘리기 보다는 주요 부품의 국산화, 부품 수입선의 다양화, 새로운 적정재고량 산정, 부품 공급자와의 협력강화 등과 같은 자구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

#### 개도국일수록 부정적 영향은 커진다

---

□ 테러로 인한 각국의 보안검색 강화는 장기적으로 선진국보다는 개도국에 더 큰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향후에도 그 격차가 심화될 전망이다.

- 개도국이나 저개발국가에서 더 많은 테러조직이 운영되고 있으므로 개도국에서 수출되는 교역품에 대한 보안검색이 더욱 강화될 것이 분명함. 이로 인한 개도국 수출품에 대한 통관요건 강화 및 통관시간 지연으로 인해 개도국의 수출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임.
- 9·11 테러 이후 안전에 대한 우려로 인해 관광산업이 침체기를 맞고 있는데, 개도국의 경우 관광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개도국 평균치 : 총수출의 7%, GDP의 2~3%) 충격흡수 능력이 적음.
- 특히 관광산업 비중이 큰 캐리비안, 남태평양, 일부 중동국가 및 동남아시아 국가는 많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됨.
- 테러 이후 주요 선진국에서 안보를 이유로 비자발급 요건이나 이민요건이 대폭 강화되었는데, 이로 인해 개도국 노동인력의 해외취업이 어려워지면서 개도국 노동자의 소득감소로 인한 유효수요 부족 등의 우려가 나타나는 등 개도국 경제는 테러 이후 선진국에 비해 여러 면에서 더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우리 수출면에서도 최근 선진시장의 경기침체를 개도국 시장이 대체해 주기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며, 최근 미국과 체결한 “컨테이너 보안협약(Container Security Initiative, CSI)”과 같은 국제협력 추진시에도 우리가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을 시사함.

---

## 국제무역 비용이 증가한다

---

- ☐ 테러 이후의 보험료 상승과 보안검색 강화로 인한 운송비용 증가는 국제무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일반적으로 국제무역 비용은 관세, 비관세장벽, 국가간 상이한 통화단위, 법률 및 결제방식 차이, 선적비용 등으로 인해 국내거래 보다 평균 10~20%의 비용이 더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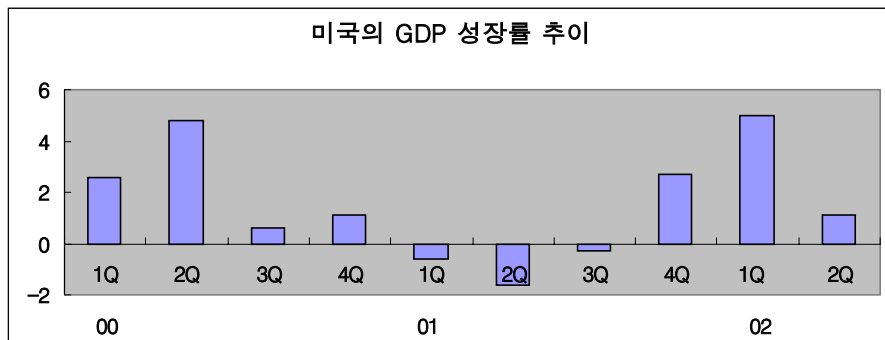
- 미국의 통계수치를 예를 들면, 교역품의 세관신고 가격에서 보험료와 운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3.5%인데, 테러 이후의 보험료 및 운송비용 증가는 거래비용 증가를 가져오게 됨.
- 거래비용에 대한 국제무역의 탄력도가 2~3%인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거래 비용 증가는 국제무역을 축소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음.
- 보험료 인상이나 운송비용 증가는 수출품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므로, 우리 수출에도 타격을 입힐 가능성이 다분함.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보험료나 운송비용 같은 거래비용 상승을 비용구조 혁신을 통해 기업 내부에서 흡수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정책당국도 부보 회피나 보험료의 부당한 인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험시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임.

## ※ 부 록

### 9.11 테러 1년 후, 미국 경제현황 및 시장변화

#### I. 9.11 이후 미국 경제현황

9.11 테러 공격 직후 미국 경제는 항공, 보험 등 테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일부 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분야에서 전문가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빠른 속도로 제자리를 되찾았다. 민간소비 증가와 정부지출 확대가 휘청이던 미국경제를 신속히 안정시키며 2001년 세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 하였던 GDP가 테러 이후 4/4분기에 2.7% 올 1/4 분기에 5.0% 성장을 기록 하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



\*자료원 : Bureau of Economic Analysis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의 미국경제는 기업의 회계부정 스캔들, 불안정한 금융시장, 기업의 실적저조 및 투자지연, 실업률 증가, 소비자 신뢰지수 하락 등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민간소비의 지속증가, 노동생산성 증가, 제조업 지수도 지난 2월이래 성장추세로 접어들고 있어 미국 내에서도 ‘경기가 회복 중’이라는 의견과 ‘더블딕(Double Dip)’ 발생 우려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등 향후 미국경제 방향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임.

## 1. 민간 소비부문 : 흔들리는 미국 경제의 구원투수

9.11 사태는 2001년 초부터 후퇴하기 시작한 미국경제에 치명적인 악재였으나 민간소비부문은 정부의 각종 경기 부양책, 역대 최저수준의 금리, 기업의 대대적인 할인 판매 등에 힘입어 테러를 기점으로 플러스 성장으로 반전됨.

기업들이 향후 미국경제에 대한 우려로 투자를 주저하고 미국 발 경기불황에 따른 세계 경제여파로 미국의 수출 또한 확대를 기대하기 힘든 가운데 미국 경제의 2/3를 차지하는 미국 민간소비 부문의 약진은 허약해진 미국경제를 끌어올리는데 크게 기여함.

### ☞ 미국 소비확대의 주요 요인

#### □ 가처분 소득의 증가

미 상무부 자료에 따르면 7월말 기준 12개월 평균 가처분소득은 전년대비 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테러사태 이후 부시행정부가 경기부양책 일환으로 실시한 세금환급 조치 및 감세 조치로 인해 전년대비 10%정도 줄어든 세금감면 효과와 노동생산성 증가로 인해 시간당 임금이 2% 상승한 결과로 실질적인 소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 □ 모기지 금리 인하로 금융비용 절감 및 추가하락 상쇄효과

2001년에 실시된 금리인하 정책으로 주택 모기지 금리가 32년래 최저 수준인 6%대 (30년 상환모기지)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기존보다 낮은 금리의 모기지로 옮겨감으로 월 상환액의 감소효과 발생. 또한, 작년 테러 이후 주택거래량과 가격이 모두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당분간 저금리 기조가 유지될 전망이고 주택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당분간 주택시장은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임. 이러한 주택시장의 활황은 하락세에 있는 주식시장의 손실을 상쇄시킴으로써 소비심리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함.

#### □ 기업들의 저가할인판매 정책

테러사태 이후 GM사가 'Keep America Rolling'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무이자 할부판매를 전격 실시한 후 경쟁 기업들이 무이자 할인판매 적극 참여함에 따라 미국 자동차 판매는 작년 4분기 중 전년대비 14.4% 판매 증가를 나타냄. 올해 들어서도 2차 무이자 판매를 시작한 7월 이후 8월 판매가 전년대비 13% 증가하는 등 할인판매로 인한 소비지출 지속. 백화점이나 저가 소매점들도 판매감소를 만회하기 위하여 판매제품의 세일가격에서 다시 50% 세일하고 추가로 Extra 세일을 실시하는 하는 등 테러 이후 불필요한 소비를 자제하려는 소비자들의 구매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다양한 할인정책을 실시.

#### □ 실업에 대한 대응력 증가

실업률은 최근 6%를 넘나들며 경기가 호황이었던 2000년의 3.6% 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80년대와 90년대 초반의 실업률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미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매월 4백만 명의 미국인이 직장을 옮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미 고용시장은 정상적인 유연성을 보이고 있음. 또한, 2000년에 실시한 센서스 결과에 의하면 맞벌이 부부가 86년도에 비해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실직에 의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 2. 기업부문 : 건전한 미국 경제회복의 관전

### 9.11 1년 후 미국 주요 기업부문별 성적표

| 미국 기업부문별 성적표 | 수 | 우 | 미 | 양 | 가 |
|--------------|---|---|---|---|---|
| 일반 제조업       |   |   | ○ |   |   |
| IT 산업        |   |   |   | ○ |   |
| 통신 산업        |   |   |   |   | ○ |
| 자동차 산업       |   | ○ |   |   |   |
| 항공 산업        |   |   |   |   | ○ |
| 가전 산업        |   | ○ |   |   |   |

\* 자료원 : USA Today

#### □ Manufacturing (일반 제조업)

올 상반기 제조업은 5%의 성장을 나타냈으나 경기회복기의 제조업 평균 성장률인 10% 성장을 밑돌고 있어 확실한 경기회복으로 보기 어려움. 지난 11

월 이후 민간소비 증가 및 소비심리의 상승에 힘입은 주문확대로 제조업 지수가 상승 추세였으나, 8월 미국의 제조업 지수 (PMI Index)가 7월에 이어 50.5로(50 이상이면 제조업 경기호전) 예상보다 낮은 성장을 보이는 등 제조업 경기도 보합세를 유지. 신규투자자와 채용을 미루어 왔던 제조업 분야는 하반기 소비자들의 소비에 따라 완전한 회복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됨.

#### □ Technology (IT 산업)

전 산업의 인터넷 붐과 Y2K 특수로 인해 호황을 누렸던 IT업체들은 2000년부터 시작된 '닷컴기업'의 거품붕괴와 지난해 9.11 테러 이후 기업들의 정보시스템 투자 지연으로 인해 주가가 폭락하고 수익이 악화됨. 많은 IT 기업들의 도산하였고 감원으로 인한 실업이 급격히 증가해 최근 IT 산업의 중심인 실리콘 밸리의 실업률이 7%를 기록하며 전 미국평균(5.9%)을 초과하는 등 금년 하반기까지도 어려움이 지속될 전망. 하지만, 최근 들어 기업들이 고속첨단서버 등 정보시스템 분야에 대한 투자재개를 고려하고 있고 세계 최대 칩메이커인 인텔사도 향후 영업실적 호전을 예상하고 있어 2003년부터는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됨.

#### □ Telecommunications (통신산업)

90년대 말 인터넷 업종이 급성장함에 따라 광섬유 통신망 설비에 막대한 투자를 한 통신회사들은 닷컴의 몰락에 따른 통신수요 감소로 인해 막대한 부채를 떠안게 됨. 급기야 메이저 통신회사인 월드컴사를 비롯해 많은 통신사들이 파산을 선언하게 되었고 통신주 폭락으로 인해 2조 달러에 이르는 손실이 발행하는 등 통신업계는 어려움을 거듭하고 있음. 당분간 뼈아픈 구조조정과 합병작업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통신업계는 향후 무선통신 및 초고속 통신망 수요확대와 함께 회복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됨.

#### □ Autos (자동차산업)

미 자동차 업계는 9/11 테러 이후 경제불안에도 불구하고 무이자 할부플랜과 같은 재정 플랜 등을 통해 꾸준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음. 미 자동차딜러협회(NADA : National Automobile Dealers Asso.)는 올해 미국 자동차 예상 판매대수를 종전 1,640만대에서 2.4% 증가한 1,680만대로 상향조정. 또한, 9/11 사태 이후 강화된 공항 보안 및 까다로운 이용 절차로 자동차 여행이 늘어

나고 있고, 특히 여행을 위한 레저 차량 (RV) 판매가 늘고 있어 향후 차량 수요는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 Airlines (항공산업)

9.11 테러사태 이후 가장 손실을 입은 산업은 항공산업으로 나타나며, American, United, US Airways 등 미국 3대 메이저 항공사들의 경우 2001년에 110억 달러의 손실을 냈으며 올해에는 50억의 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테러이후 여행객들이 안전과 보안검색 등의 불편함을 이유로 비행기 이용을 기피하고 있으며 항공사 수익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Business Traveler(출장자)들의 승객비율이 9/11 테러 전보다 50% 이상 감소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이들 메이저 항공사들은 기존 출장자 위주의 노선 관리에서 일반 이용객 위주로 변경하고 있으며, 기존에 이용도가 낮은 노선을 대폭 감축해 손실의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음.

#### ☐ Electronics (가전산업)

2001년에 932억불의 매출을 기록한 미 가전업체는 9/11 테러 이후 소비자들이 여행을 자제하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는 경향을 보이면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올 상반기까지 8.7%의 판매 증가를 보이는 등 소비재 가전제품의 판매는 올해도 3%이상 증가할 것으로 내다봄. DVD, 디지털 TV, 등 디지털 제품이 가전제품 판매 증가를 선도하고 있는 가운데 테러와 경제침체로 인해 위축된 소비자들의 여가에 대한 욕구가 가전 및 전자제품의 수요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어 향후 지속적인 판매 확대가 예상됨. 또한, 자동차업체의 무이자 할부판매 실시로 가전제품 판매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 가전업체도 무이자 할부 프로그램 실시하는 등 가전수요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음.

### 3. 금융부문 : 한치 앞을 예측하기 힘든 혼조세

#### ☐ 주식시장

Enron사 사태로 촉발된 미 기업의 회계부정 사태는 WorldCom, QWest로 이어지며 미 주식시장 신뢰도에 큰 악재로 작용함에 따라 상반기 주식시장은

불안한 등락을 거듭하였음. 정부의 잇따른 회계부정방지 대책과 업계의 자정 노력으로 신뢰도를 회복해 가고 있으나, 최근에는 기업들의 영업부진에 따른 실적 악화, 각종 경제지표들의 부진, 미 주식시장 불안에 따른 투자위축 등으로 인해 약세를 지속하고 있음. 최근 5년래 최저수준을 보이고 있는 주식 시장은 ‘주가가 저평가 되어있어 향후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과 ‘기업 실적에 비해 고평가 되어 있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향후 기업실적에 따라 주식시장의 상승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 □ 외환시장

기업회계 부정과문으로 달러표시 자산의 안정성 및 신뢰성이 저하되고 경제회복에 대한 우려로 미국 내 투자자산의 기대 수익률이 하락함에 따라, 국제 투자자본의 유입이 감소하고 경상수지 적자가 확대되면서 달러가치가 약세가 지속. 국제 투자자본 유입 감소 및 경상수지 적자 확대 등 달러가치 약세요인이 지속, 달러화는 앞으로도 당분간 약세를 보일 전망. 하지만, 급락 가능성은 희박하며, 장기적으로는 미국 경제의 회복 여하에 따라 움직일 것으로 전망됨.

## II. 테러사태 후 미국 시장환경 변화와 산업별 영향

### 1. Security(보안)에 대한 관심 증가 ⇒ 보안산업

9.11 테러사건 이후 미국 내 보안에 대한 관심고조로 인해 보안시장은 전례 없는 성장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러한 성장추세는 향후 2-3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임. 특히 공항 및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한 검색강화는 이용자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테러 등을 우려하는 대다수 여론의 지지를 힘입어 강화되어 가는 추세임.

이러한 사회전반의 흐름을 타고 보안업계는 다른 산업분야의 침체와 대조적으로 꾸준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며, 일부에서는 이러한 수요증가를 Y2K 문제 이상의 호재로 판단하고 있음. 특히 기존 보안시설의 허점을 파고드는 테러범이나 해커들의 수법이 날로 지능화함에 따라 이를 능가하는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수요도 급속히 증가됨.

#### ☞ 산업별 영향

##### □ 보안산업

9.11 이후 감시 및 접근통제시스템이 테러나 범죄위협으로부터 직접적인 보안수단으로 인식되면서 1차적인 수혜분야가 되고 있는 상황이며, 컴퓨터 네트워크 보안 등 정보분야의 보안이 아울러 강조되면서 2차 수혜분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임. 마켓리서치 전문기업 Frost and Sullivan사는 미국의 보안산업이 2006년까지 39%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1) 감시시스템 분야

CCTV를 활용한 감시시스템 분야에서는 회전(돔)형 전방위 CCTV와 이를 통해 촬영한 화상에 디지털기능을 부가하여 화면가공 및 네트워크 연결을 수행할 수 있는 DVR 등 차세대 감시 시스템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임.

## 2) 접근통제(Access Control)시스템 분야

접근통제(Access Control)시스템 분야에서는 Smart Card 출입통제 시스템이 현재까지 확고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상태이나 점차 지문인식, 홍채인식 등 생체인식시스템이 기반을 넓혀 가고 있는 상황임. 아울러 복사 및 위조기술 발전에 대응하여 홀로그램이나 OVD(Optically Variable Devices)기술 등 위조방지장치들을 마련하고 있는 추세임.

## 3) 정보보안 분야

컴퓨터 네트워크 등 정보보안 분야를 위해서 방화벽, 사용자 암호설정 등 불법사용통제기술 및 관련 프로그램들이 실질적으로 활성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임. 특히 해커(사이버테러리스트)들로부터의 침입을 감지하고 방어하기 위한 침입감지시스템이나 방화벽 관련 분야의 발전이 두드러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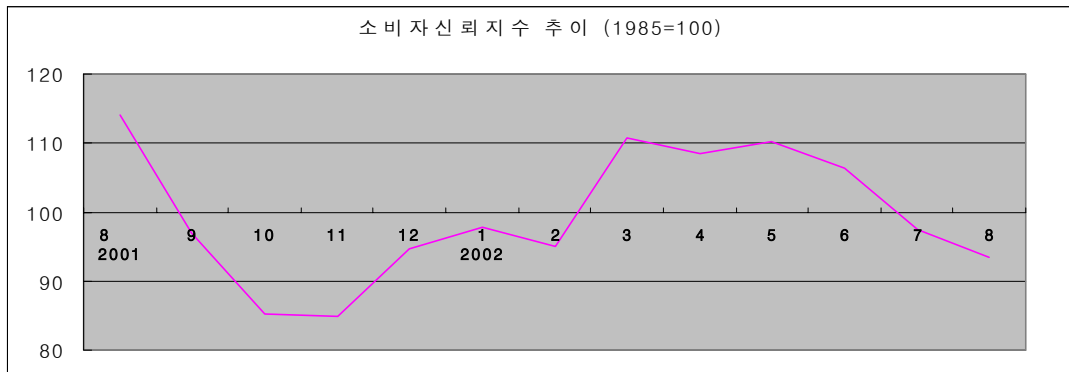
## 2.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신중한 소비, 투자 경향 ⇒ 유통산업, 자동차, 기계산업

지난 1년 동안, 미국 경제 회복에 대한 전망이 여러 번 엇갈리면서 아직도 불투명한 상황을 보이자 9.11테러 1주년을 맞이하는 미국인들은 테러재발보다는 경기침체를 더 우려하고 있음. 9월초 보스턴 헤럴드지가 미국 시민 1,0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3분의 2정도가 테러보다는 경제를 더 걱정한다고 답변함.

2001년 4/4분기 이후 무이자 할부 판매로 촉발된 개인소비의 확대가 미국경제 성장을 이끌고 있지만 기업들의 구조조정 확산에 따른 실직위협과 지속적인 추가하락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등은 여전히 소비자들로 하여금 소비를 주저하게 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미국인들의 소비행태가 고가보다는 중저가를, 가구나 침대와 같은 내구재보다는 단순 소비재나 생필품위주로 바뀌어 가고 있음.

또한, 각 기업들은 매출 확대를 위해 각종 무이자 할부 프로그램과 대폭적인 할인판매를 실시하고 정부도 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해 세금공제 혜택을 주는 등 위축된 소비(투자)심리 해소를 위해 전력을 기울임.

## 미국 소비자신뢰지수 추이 (Consumer Confidence Index)



\* 자료원 : The Conference Board

### ☞ 산업별 영향

#### □ 유통산업

9.11 테러사태에도 불구하고 미국 소매유통산업은 민간소비의 활성화로 인해 양호한 성장세를 이룬 것으로 나타남. 특히, 경기위축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와 신중한 소비에 따라 가격수준을 최우선 구매요인으로 꼽으면서 디스카운터 스토어, 창고판매 및 달러스토어와 같은 저렴한 가격대의 할인매장들의 매출은 급격한 증가를 시현함.

반면, 고급 제품 및 기호상품을 판매하는 백화점 또는 전문점들의 매출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이며 기업 투자 지연에 따른 사무가구 판매점 및 사무용품 전문점의 판매는 크게 위축됨.

### 주요 유통업체들간 영업실적 비교 (8월)

(단위: 백만불, %)

| 할인유통업체 (Discounters) |        |       | 백화점 (Department Store) |       |       |
|----------------------|--------|-------|------------------------|-------|-------|
| 회사명                  | 매출액    | 매출증가율 | 회사명                    | 매출액   | 매출증가율 |
| Wal-Mart             | 18,373 | +11.7 | J.C. Penny             | 2,509 | + 1.0 |
| Target               | 3,231  | +7.5  | Sears                  | 2,000 | -8.7  |
| Costco               | 3,000  | +10.0 | Federated              | 1,086 | -3.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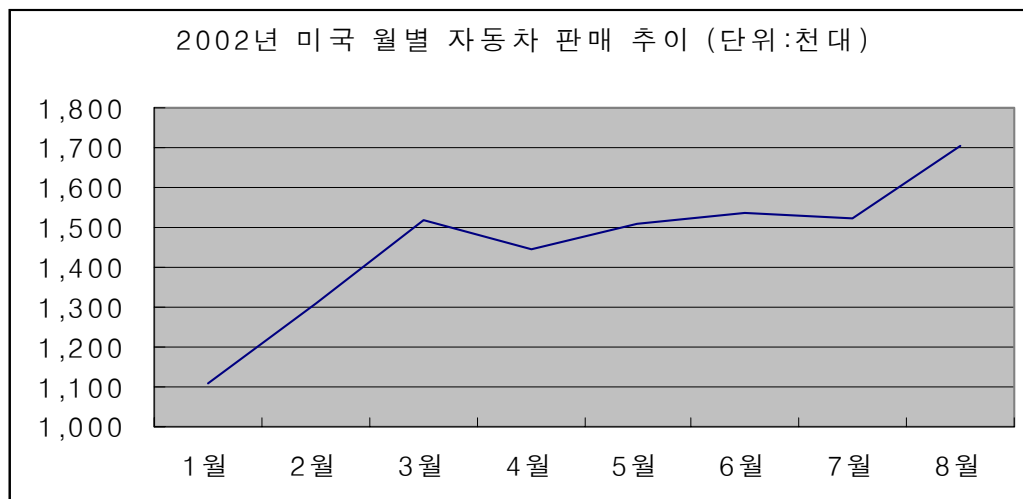
\* 자료원 : Wall Street Journal

## □ 자동차 산업

GM 자동차는 테러사태 이후 자동차 판매량이 40% 이상 하락하자 긴급대책 회의를 통해 9월 19일 0% Financing을 골자로 하는 “Keep America Rolling” 계획 전격 발표 시행에 들어가자 10월 판매가 전년동월대비 35.8%, 직전월인 9월 대비 42.7%의 대폭적인 증가를 기록함.

여타 미국 완성차 업체도 무이자 할부판매전략을 도입하여 지난해 4분기 미국의 자동차 판매는 4,369천대로 전년동기대비 14.4% 증가함. 2002년 들어 생산량 확대 추진 및 구매자 인센티브 지속 시행하였으나 자동차 판매는 달러화 가치 및 주가하락 등의 경제불안 요인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상반기 중 5.3% 감소세 기록. 7월들어 GM을 비롯한 완성차 업계의 2차 무이자 할부 판매를 전격 시행함으로써 7월의 12.9%, 8월 13%의 높은 판매증가세를 기록함.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지난해 9.11테러 사태이후 GM을 비롯한 완성차업체들이 0% 파이낸싱 제도를 신속히 도입함에 따라 불과 3개월만에 100만대 판매 수준의 효과를 내며 미국의 경제침체를 방지하는데 크게 기여한 자동차산업이 올해에도 미국의 경제회복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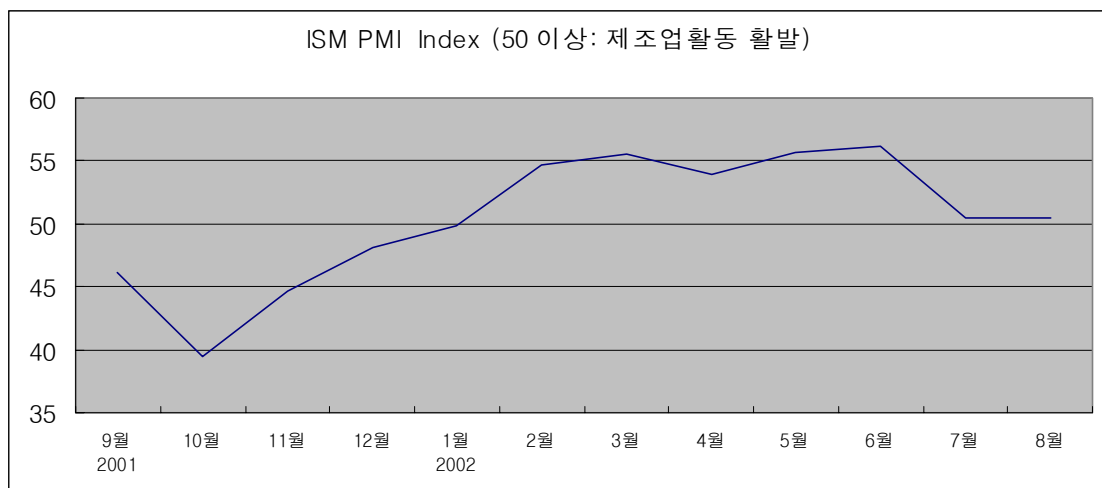


\* 자료원 : Automotive News

## □ 기계산업

미국경제가 2001년 3월부터 침체 현상을 보이기 시작하자 그 여파가 제조업으로 이어짐. ISM에서 발표하는 Purchasing Managers' Index(PMI)가 2001년 초에 이미 43.7%를 기록하였으며( 50이하면 생산둔화 의미) 9.11사태이후 39.8%로 급격히 악화. 제조업의 사업환경이 급속히 악화되자 기계류 판매도 큰 폭으로 줄어들었고 기업실적이 악화되며 투자여력이 부족하게 되어 기계류의 신규주문도 대폭 감소함.

테러 이후 민간 소비증가에 따라 신규주문이 증가하고 제조업 활동도 증가하기 시작하였을뿐만 아니라 부시 행정부가 자본재 투자 촉진을 위해 총 기계구매키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세금공제 혜택을 주는 경제종합부흥법안을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경제상황에 대한 기업들의 확신 결여로 설비투자도 이어지는 데는 미흡한 상태임.



기계 생산업체 역시 자동차판매와 유사한 다양한 저이자율 융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판매를 촉진하고 있음. 기계의 경우 판매 가격이 매우 높기 때문에 기계수요자에 대한 금융제공이 판매량증대에 큰 변수 역할을 하고 있음. 제조업체 외에도 디스트리뷰터, 금융회사, 은행 등이 융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 구입시 최소금액을 Down - Payment 한후 일정기간에 걸쳐 분할상환하는 방식이 선호되고 있음. 또한 리스방식이 크게 인기를 끌고 있는 추세임.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중고기계나 저가기계로의 수입선을 전환하는 추세도 나타남.

### 3. 테러 후 가족 위주의 소비패턴 부상 ⇒ 일반소매제품, 가전제품, 유아용품

9.11 테러로 많은 희생자와 가족들을 지켜본 미국인들은 1) 심리적 안정과 2) 가족과 함께 정을 나눌 수 있으며 3) 심신의 평안을 가능케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선호하는 소비패턴을 보이기 시작함. 테러 사건 이후 가족 친지와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 무선전화 가입자가 급증하였고, 가족단위의 볼링장 이용이 늘고 가족영화의 매출이 증가하는 등 가족위주의 소비패턴이 급부상하기 시작함.

여행이나 외출보다는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머물며 여가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Home Theater System 등 가족여가 상품의 판매가 늘어나는 추세. 또한 새롭게 가정을 갖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속에 출산율도 증가추세에 있어 베이비붐시대 이후 출산율이 최고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베이비 관련 상품의 매출 증가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 ☞ 산업별 영향

##### □ 가전제품산업

‘가족 여가 중심의 소비패턴’과 기존 아날로그 제품의 ‘디지털 정보가전화 추세’가 어우러져 미국의 가전제품 시장은 테러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가족들을 한데 모아온 TV의 경우 대형 디지털 TV의 판매가 대폭 늘어났고 VCR의 경우도 DVD가 빠르게 시장을 대체해 가며 2001년 9월 이후 DVD의 매출이 VCR의 매출을 추월함. 통신의 발달로 인해 인터넷을 통한 사진전송이 용이해 짐에 따라 가족과 친구에게 사진을 보내기 위한 디지털 카메라 및 캠코더의 판매도 증가추세임.

2001년 932억불의 매출을 기록한 미국의 가전시장은, 2002년에 2.7%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향후 경제상황에 따른 민간 소비부문의 결과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 □ 일반소비재 산업

소비패턴이 가족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이들 수요에 적합한 가정용품 및

일반소비재 상품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 전통적 비수기인 여름시즌에도 사진 액자의 수요는 증가였고 외식을 줄이고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주방용품 및 식기류의 매출도 15%가량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마케팅 리서치 회사의 AC Nielsen의 조사에 의하면 뜨개질 등 바느질 소품의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는 테러사태 이후 안전한 곳을 원하는 미국인들이 가정에서 한가로이 바느질을 하며 심리적 안정을 찾으려는 데서 기인하고 있다고 밝히듯 테러이후 심신의 안정을 가져오는 제품들의 수요가 늘고있음.

테러 공격 이후 심리적으로나 행태적으로 가장 큰 변화를 보인 연령층은 18~34세 사이의 Gen X/Gen Y이라고 조사되었고 이들이 주로 구매하는 선물용 액세서리나 양초, 방향제 등의 매출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됨.

#### □ 유아용품 산업

1990년대 이후 미국의 출생률은 지난 30년 새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9.11 테러 이후 출산율이 더욱 상승함에 따라 전후 베이비 붐 이후 제2의 베이비 붐이 예상됨. 이에 따라 미국의 영. 유아, 어린이 관련 시장규모가 급격히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유아용품 시장 중 가장 빠른 성장을 보이는 것은 의류시장으로서 영아 및 유아복 시장규모는 1991년 44억 달러에서 2001년에 106억 달러로 10년간 14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2001년 기준 344억 달러 시장규모(전년대비 10% 증가)를 지닌 완구시장도 제2의 베이비 부머를 겨냥한 시장쟁탈이 뜨겁게 달구어질 것으로 예상됨.

### Ⅲ. 수출 유망 상품

테러 이후 미국 내에서 수요가 증가한 제품들로는 유사한 사태에 대비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됨에 따라 보안장비 및 용품, 통신장비 등을 꼽을 수 있으며 가족중심 가치관에 따른 각종 가정용품 및 선물용품들이 주를 이루고 있음.

| 제품군  | 상세품목                                                                                                                                                                                                                                                                                                                                                                                                                                                                                                                                                                                                                                                                                                                                                                                                                                                                                                                                                                                                                                                                                                                                                                                                                                                                                                                                                                                                                                                                                                                                                                                                                                                                                                                               |
|------|------------------------------------------------------------------------------------------------------------------------------------------------------------------------------------------------------------------------------------------------------------------------------------------------------------------------------------------------------------------------------------------------------------------------------------------------------------------------------------------------------------------------------------------------------------------------------------------------------------------------------------------------------------------------------------------------------------------------------------------------------------------------------------------------------------------------------------------------------------------------------------------------------------------------------------------------------------------------------------------------------------------------------------------------------------------------------------------------------------------------------------------------------------------------------------------------------------------------------------------------------------------------------------------------------------------------------------------------------------------------------------------------------------------------------------------------------------------------------------------------------------------------------------------------------------------------------------------------------------------------------------------------------------------------------------------------------------------------------------|
| 가정용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가정용 정수기 및 필터</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화학테러에 대한 우려에 기인. 현재 미가구에 30% 이상 침투, 시장규모는 2002년 10% 성장한 1억6천만불 전망</li> <li>- 특히 수도꼭지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필터(Faucet-Mount System)는 작년에 비해 매출규모가 80%로 급성장하여 7천만불 예상.</li> </ul> </li> <li>○ <b>사진액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확실성과 위기의 시대를 미국인에게 가족의 단란함과 행복감에 대한 관심도 증가</li> <li>- 액자의 디자인은 현 패션화 경향과 함께 테러영향으로 심플한 복고풍도 유행전망.</li> <li>- 시장규모는 2002년 3백만불에서 향후 2-3년간 10%대의 꾸준한 성장전망</li> </ul> </li> <li>○ <b>요리기구(Microwave Cookware)</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행에 대한 자제, 가족과 여가 생활 증대에 따른 시장수요 확대 품목.</li> <li>- 시장규모는 2001년 3억5천에서 15% 성장한 4억불규모 예상</li> <li>- 제빵기구(Breadmaker)의 경우 지난 3년간 매출규모가 지속 감소하였으나 2002년이후 시장수요 확대 전망</li> </ul> </li> <li>○ <b>정원용 바비큐 그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 4가구당 3가구가 백야드에서 바베큐를 즐김. 가족과의 여가생활 증대에 따른 시장확대 품목</li> <li>- 시장규모는 2002년 40.1백만불로서 향후 매년 8-10% 지속성장 전망</li> </ul> </li> <li>○ <b>전등 (Potable Lighting, Task Lighting, Torchiers)</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4년까지 매해 10.4% 성장, 시장규모는 127억 5천만달러 전망</li> <li>- 특히 Task Lighting이 재택근무의 증가에 따라 시장확대 전망 (2001년 9천6백불에서 2002년 25%증가한 1억2천만불 전망)</li> </ul> </li> <li>○ <b>양초</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접조명중심의 미가정에서 10가정중 7가정이 사용, 2002년 12% 성장한 30.5억불 전망. 테러영향으로 복고풍으로 돌아가려는 생활태도 반영</li> </ul> </li> <li>○ <b>홈엔터테인먼트 및 홈오피스 제품</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igital TV, DVD 플레이어, 게임기, 인터넷 Set-top 박스, 쌍방향 TV, PVR(개인용 비디오녹화기), 위성방송 수신기, 디지털 라디오, 홈엔터테인먼트용 가구 등의 홈엔터테인먼트 용품이 가족과의 여가생활증대에 기인하여 수요확대 전망</li> <li>- 사무용 의자, PC, 프린터, 화상회의 시스템 등 홈오피스 제품이 테러에 따른 사무실 근무 기피를 반영 시장 수요 확대 전망</li> </ul> </li> </ul> |

|      |                                                                                                                                                                                                                                                                                                                                                                                                                                                                                                                                                                                                                                                                                                                                                                                                                                                   |
|------|---------------------------------------------------------------------------------------------------------------------------------------------------------------------------------------------------------------------------------------------------------------------------------------------------------------------------------------------------------------------------------------------------------------------------------------------------------------------------------------------------------------------------------------------------------------------------------------------------------------------------------------------------------------------------------------------------------------------------------------------------------------------------------------------------------------------------------------------------|
| 통신기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선데이터 서비스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테러이후 미국인들의 가족과 친구들의 안녕에 대한 염려와 더불어 불확실성시대를 살아가는 미국인들의 정보에 접근성 증대에 기인한 수요 증가품목</li> <li>- PDA, Pager, Pocket PC, 휴대폰을 중심으로한 미국의 와이어리스 데이터 서비스 시장은 2002년 본격적인 무선인터넷 보편화로 연평균 75% 성장, 2005년 에는 시장규모가 220억불 예상. 보급율 75%예상</li> <li>- 특히 휴대폰(음성/데이터겸용 휴대폰, 일회용 휴대폰)의 경우 음성/데이터 겸용 휴대폰은 GMRS 등 데이터통신서비스가 금년에 전국 규모로 시행됨<br/>에 따라 시장규모가 2005년에는 2억불로성장 전망</li> </ul> </li> <li>○ 위치기반 서비스 (GP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인들의 테러이후 항공기 여행보다는 자동차를 이용한 이동, Security 대 한에 관심고조, 한곳에 머물러 생활하기 보다는 이동성을 중시하는 경향에 기인한 수요 증가 품목</li> <li>- 위치기반 서비스는 통신, 화물/차량 추적, 자동차 네비게이션중심으로 급 성장. 특히 미연방통신위원회(FCC)가 전화통신회사에게 911 긴급전화시 핸드폰 소지자의 위치파악을 의무화함</li> <li>- 시장규모는 향후 4-5년간 62%-81% 성장하여 2006년까지 340억불에서 410억불 급속한 시장확대 전망</li> </ul> </li> </ul> |
| 보안장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ccess Contr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5년(33억불)까지 평균 10% 높은 증가세. 특히 Contactless smart card 의 경우 생산자들간의 표준설정 합의만 이루어지면 큰시장으로 성장유망</li> </ul> </li> <li>○ Biometric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5년까지 3,900백만불로 시장확대 전망. 최근 West Virginia가 운정면허 증에 지문 및 얼굴인식시스템 사용</li> </ul> </li> <li>○ Alarm System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0년 시장규모는 12억불이며 시장규모 지속 확대중에 있음. 상업용 건물 부문에 보편화(78%)됨</li> </ul> </li> <li>○ CCT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 Security 장비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성장세를 보임.</li> <li>- 시장규모가 2000년 10억불, 2005년에는 16억불로 확대전망</li> </ul> </li> <li>○ 기타 DVR, Door Video, 가스탐지기 등에 대한 수요가 급증</li> </ul>                                                                                                                              |
| 구난장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화학테러전에 대비 방독면, 의료용마스크, 고무장갑, 주사기, 백신, 산소마스크, 응급처치 세트, 손전등, 비상식량, 충전식 구명등, 대피용 밧줄, 백신 등이 수요가 증가함</li> </ul>                                                                                                                                                                                                                                                                                                                                                                                                                                                                                                                                                                                                                                                                                              |